

OpenDoors

09

2022

VOL.245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Heart to Heart

“한국오픈도어, H4ME 캠페인 7년의 결과”

박해와 선교현장

이라크(IRAQ)

현장 레포트

H4ME 캠페인, “H4ME 캠페인이 만든 변화”

현장 스토리

페리얼(Ferial), “희망의 힘”

현장 소식

이라크, “소액대출 프로젝트의 열매”

Ch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Doors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시리아와 이라크의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홍규목사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죽이라는 헤롯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는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마태복음 2:18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태어난 후 결국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의 탄생과 함께 무수한 생명이 이유도, 까닭도 없이 죽어갔고 예수님도 친히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2천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죽고 고난 받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는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주고, 고난을 주는 분인 것 같아 두렵기까지 하다며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분은 곧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분이 왕이시고 그 분이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도 어찌 이런 불행한 일들을 그냥 보고만 있고 어떤 해결도 응답도 없이 세월만 가며 여전히 핍박과 박해로 죽어가는 일들이 지구상에 계속되고 있을까요? 때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곤 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은 고난 중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응답이나 구원이 없어서 고통하며,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조롱을 받기까지 하였기에 “내 눈물이 밤과 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의 자리에서 고난 받으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처한 분들이나 죽음으로 순교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 시의 내용으로 탄식하고 울부짖다가 순교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앤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 사무라이 시대 때에 일본에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때 한 신부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백성이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하고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크리스천이 죽고, 그 백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정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죽고 죽이는 마당에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전능하신 신이라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네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고 조롱당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대답이 필요한 것입니까?

시리아, 이라크의 핍박과 박해지수는 세계 상위권에 속할 만큼 이슬람의 기독교 박해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잔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바라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고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팬데믹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교회는 문을 닫아야 했고...성도들은 꼭꼭 숨어야 했고...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앤도 슈샤쿠의 책 <침묵>에서는 신부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있느니라...” 즉,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고난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으로 그들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필자나 다른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하게 해주든지, 건져주든지 해야지, 그냥 같이 고난만 당하는 무력한 분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종일 부르짖고 별짓 다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는 단 한마디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하고 외치니까, 단 한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바알처럼 아무 응답이 없으신가? 하고 탄식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 42:5절과 11절에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제한적입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허락하신 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늘로 돌아가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 상이 크다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2년 09월호 | 통권 245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업)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사
사무총장 _김경복 선교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김지옥, 김보미, 오현정, 문민환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김셋별

두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로마서 12:19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보복하고 싶고, 되갚아 주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 반드시 그렇게 되었고, 또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목도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자녀)이 되어야 하고, 오직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CONTENTS

- 04 Heart To Heart
“한국오픈도어, H4ME 캠페인 7년의 결과”
- 08 박해와 선교현장
이라크(IRAQ)
- 16 현장 레포트
H4ME 캠페인, “H4ME 캠페인이 만든 변화”
- 20 현장스토리
페리얼(Ferial), “희망의 힘”
- 22 현장 소식
이라크, “소액대출 프로젝트의 열매”
- 24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업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오픈도어, H4ME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 7년, 그리고...

'H4ME(중동에 희망을)' 캠페인이란?

'중동에 희망을' 캠페인(H4ME: Hope for Middle East)은 중동지역, 특별히 시리아와 이라크의 크리스천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16년 시작하여 올해 2022년까지 7년 동안 진행한 오픈도어의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올해로 7년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H4ME캠페인은 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이라크 땅에 돌아와 절망에 빠진 민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오픈도어의 글로벌 캠페인에 발맞춰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역시 시리아-이라크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절망에서 회복되어, 지역사회 공동체는 물론, 나라 전체를 회복시키는 희망의 불씨가 되는 날을 소망하며,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난 7년의 시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H4ME(중동에 희망을)' 캠페인이 시작된 이유?

국제오픈도어는 2011년 시리아전쟁이 시작된 뒤, 극단주의자들의 폭력과 박해로부터 그 땅의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시리아인들을 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쟁의 폭력적 상황과 위기들을 알리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역들을 진행해왔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리아를 떠났습니다. 도시들은 파괴되고 대량 살상이 난무했습니다. 전기는 물론 수도와 식량도 끊어졌고, 사람들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시리아를 떠나면서 교회들도 하나 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특정 도시들에 행해지던 공격은 시리아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나아가 ISIS가 등장하면서 전쟁은 이라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시리아-이라크를 넘어 더 많은 중동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극단주의 세력의 확산으로 중동 지역 크리스천들은 대거 중동 땅을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오픈도어선교회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중동지역 기독교 공동체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파트너와 사역자들과 함께 이라크와 시리아 땅의 크리스천 공동체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중동 기독교공동체들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 시리아-이라크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한 'H4ME(중동에 희망을)' 7년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년간 진행된 'H4ME(중동에 희망을)' 캠페인의 성과

캠페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동의 모든 크리스천들과 교회 공동체가 사회 경제적 역량을 회복하여 중동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교회 공동체가 희망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오픈도어는 성도들의 생계 회복을 지원하고, 주택 재건/건축, 노인복지, 지지변호활동, 구호품지원 등 많은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 많은 크리스천들과 시리아-이라크 교회들이 연결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온 크리스천들이 함께 공동체를 일으키고 삶의 기반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들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정서적으로 회복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한가지 성과는 오픈도어의 지지/변호활동을 통해 시리아-이라크 교회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전달되었다는 점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위한 오픈도어의 개발사역과 난민지원사역과 같은 다각적 지원/구호 사역들이 국제사회의 인정과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픈도어는 더 나아가, 현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박해와 불의 앞에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지와 변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기독교 박해사건 발생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년의 시간을 통한 성과 중 가장 특별한 성과는 희망센터사역의 성공적인 정착입니다. 오픈도어는 시리아-이라크 교회들 안에 희망센터를 설치하여 기독교인들과 도움이 필요한 난민/실향민에게 영적인 지원은 물론, 다양한 측면의 현실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희망센터를 통해 많은 이슬람 배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이 되는 기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 교회 중 65%(126개), 시리아 교회 중 30%(160개)의 교회가 희망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오픈도어선교회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난 7년 동안 중동을 위한 다양한 사역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7월까지 약 4,000여 명 한국 성도들과 교회가 이 'H4ME(중동에 희망을)' 캠페인에 동참하였으며, 총 544,125,939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시리아-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 교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기도로 헌신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H4ME캠페인을 지지해주시고 동참해 주신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낌없는 물질로 시리아-이라크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원해주시는 분들과, 헌신적이고 간절한 기도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중동에 희망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가?

2017년 IS가 격퇴된 뒤 물리적인 피해들은 그동안 많이 보수되었다고 하지만 그 땅에서의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IS세력이 군사적으로 패배했을 뿐 이슬람 극단주의 이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이 주류인 사회로부터 여전히 압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라크 교회 한 지도자는 “이 사회가 크리스천들을 토해 내버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리아-이라크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압박과 거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땅에서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그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리아-이라크 교회 공동체는 현재 심각한 위기 앞에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내 150만 명이었던 기독교인 수는 약

20만 명으로 1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87%가 사라졌으며,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기 전, 220만 명이었던 시리아 기독교의 수는 현재 74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심각한 경제위기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이라크-시리아를 떠났던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온 이들에게 지난 3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7년의 캠페인으로 중동 땅에 많은 변화를 만들었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에는 여전히 희망이 필요합니다. 중동지역의 교회들이 시리아-이라크 땅의 희망의 등불이 되고, 사회/경제/국가 회복의 마중물이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그들에게 ‘끝까지 희망을(Make Hope Last)’ 심어주어야 합니다.



희망의 백만기도운동 캠페인이란?

오픈도어는 시리아-이라크 교회의 회복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크리스천들이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교회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도록 다양한 지원과 후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7년의 'H4ME(중동에 희망을)' 캠페인에 이어서, 전세계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백만기도운동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희망의 백만기도운동은 전세계 성도들이 중동지역 교회에 마지막까지 희망을 전달하는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중동의 크리스천들에게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중동 크리스천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의 미래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기도 캠페인인가?

특별한 필요를 위한 기도 캠페인은 우리 오픈도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종식된 공산주의 세계를 위한 7년 기도 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픈도어는 전쟁과 위기 속에서 시리아와 이라크에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이제 그 희망의 불씨를 키워 희망이 온전한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하는 때입니다. 교회가 희망의 중심이 되도록 헌신한 7년, 그러나 그 땅에는 여전히 위기가 있고 희망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과 청년들을 비롯한 중동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를 포함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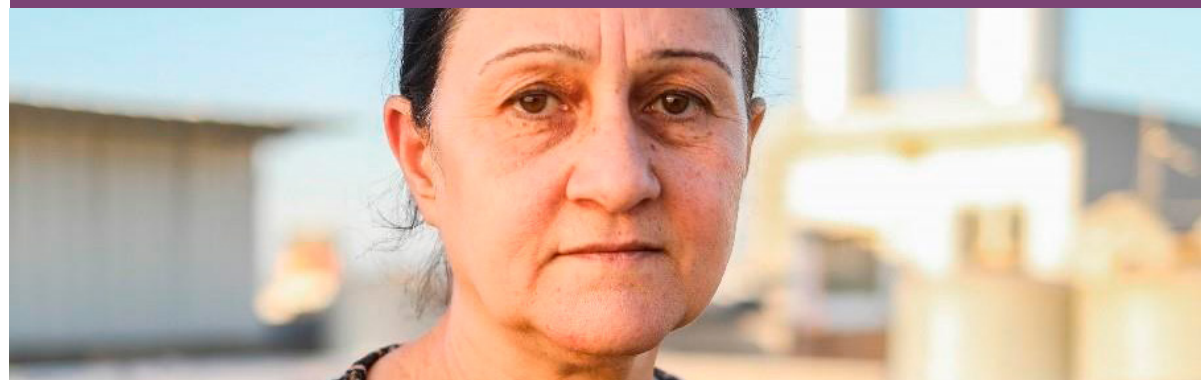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청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여전히 위협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리아-이라크 교회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희망의 백만기도운동” 캠페인에 참여하여 중동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희망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믿음의 동역자가 이 곳 한국 땅에 있다고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 희망의 백만기도운동을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www.opendoors.or.kr]를 방문하시거나, 사무실[02-596-31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 (Iraq)

기독교 박해지수
14위



폭력과 압력의 수준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X 6개 영역 = 100).

주목할 만한 점 (Key findings)

IS(Islamic States)가 이라크 영토를 상실한 후 이라크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의 주된 요인은 이란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세력들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또한, 2020년 전반기에는 IS 역시 민간인, 사회기반시설 및 보안군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터키는 이라크 쿠르드 구역(Iraq Kurdistan Region)의 여러 지역에서 쿠르드 노동당원들을 대상으로 공중공습과 지상작전을 이어갔다고 보고되었다. 2020년 6월에 이어 2021년 5월에도, 2015년 이후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폭탄테러가 터키의 기독교 마을에서 발생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마을에서 쫓겨

났다. 기독교인들은 지역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 전통이 있는 교회들(앗시리아 동방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시리아가톨릭교회, 알마니안정교회)은 무자비한 폭력과 차별, 특히 이슬람 군사조직과 비-기독교인 지도자들에게 심각한 폭력과 차별을 당한다. 기독교인들은 또한 정부 관료들로부터 차별을 겪는다. 수년 전, 바그다드의 한 신학교는 이슬람 무장세력들의 공격과 납치의 위협 때문에 이라크 쿠르드 구역(IKR)으로 옮겨야만 했다. 바그다드(Baghdad)와 바스라(Basra)의 복음주의 교회들 또한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과 비-기독교지도자들에게 폭력의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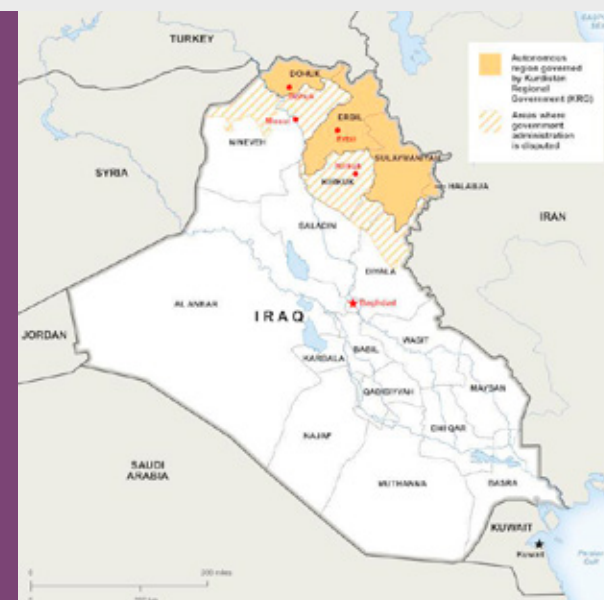
상이 되고, 지역 정부 관료로부터 차별을 겪는다. 이슬람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가족들로부터 가장 큰 압력을 받고 자신들의 신앙을 비밀로 한다.

기독교인들은 재산상속권이나 결혼할 권리를 잃을 위험에 처한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떠나는 것은 더 온건한 이슬람 지역인 이슬람 쿠르드 구역(IKR)에서도 위험한 일이다.



국가 정보

국가 지도자:
바르함 살레 대통령(President Barham Salih)
인구: 42,612,000 명
기독교인 수: 166,000 명 (0.4%)
주요종교: 이슬람교
정부형태:
연방의회공화국(의원내각제)
주 박해 요인:
이슬람의 압박, 독재정권, 혈족에 의한 탄압, 조직적 범죄와 부패, 기독교 교단 보호주의



이라크의 상황

주종교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166,000	0.4
무신론자	41,630,000	97.7
불가지론자	221,000	0.5
기타종교인	512,990	1.2

* 기타종교는 중국 민족종교, 신흥종교, 시크교, 심령교, 도교, 유교, 자이 나교, 조로아스터교를 포함한다.

권위적인 지도자 사담 후세인은 2003년 미국 주도의 군사 작전에 의해 제거되었다. 이어진 권력 공백기에,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 분파 간의 무력 충돌이 발발했다. 기독교인들은 양측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2003년, 영미 침공 이후 반서구 및 급진 이슬람 정서가 고조되면서 이라크 기독교인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확산되었다. 수많은 난민 행렬이 이라크를 떠나기 시작했고 2014년 6월 IS가 칼리프국가를 선포하

소속 교회를 바꾸는 것은(예를 들면, 정교회에서 복음주의 교회로 옮기는 것) 권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종종 처벌받는다. 예를 들면, 상속권리, 결혼권리나 전통적인 기독교 공동묘지에 고인을 매장할 권리가 거부될 수 있다. 정교회와 가톨릭교회의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성도들이 복음주의 교회 성도들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016년, IS 영토의 상당 부분이 탈환된 후, 기독교인들은 카라코시(Qaraqosh)와 같은 모술 근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던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2017년 12월, 당시 총리는 이라크군이 IS를 이라크 영토 내에서 몰아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IS의 영향력은 여전히 이라크 내에 남아 있다.

부패와 실업, 이란의 영향력 확장에 반대하는 전국적 범위의 시위는 수백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그이후 무스타파 알-카디미(Mustafa al-Kadhimi)는 2020년 5월 이라크 총리 자리에 올랐다.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낮다(1-3%). 몇몇 시아파 정당들은 이슬람 국가 이란과 온건한 관계를 맺고 있다. 바그다드 정부는 쿠르드 지방 정부(Kurdish Regional Government)에게 이슬람화를 확산하도록 압박하였다. 이슬람교는 국교이며 어떤 국가법도 이슬람 교리를 위반할 수 없다. 의회와 거리에서의 종파간 갈등과 충돌로 인해, 사회가 불안정하고 취약한 분위기이다. 이라크는 민족적

으로, 종교적으로 다양한 국가이지만 이라크 사회는 더 파편화되고 이슬람화 되고 있다. 기독교 인구가 줄면서 기독교인들의 자유도 제한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더욱 심한 감시와 함께 라마단 기간 동안 상점을 닫으라는 압박을 받으며, 여성들의 경우 얼굴을 가리는 히잡을 착용할 것을 강요받는다. 쿠르디스탄(Kurdistan)의 국내 실향민(IDP: Internal Displaced People)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년간의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높은 비율의 어린이들이 학습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인구의 약 18%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2014년부터 지금까지 330만명이 넘는 이라크인들이 국내 실향민이 되었다.

이라크 정부는 비판과 시위를 막기 위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해 왔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2021년 보고에 따르면, 논란이 되는 주제를 다루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보복성 처벌, 명예 훼손 소송 및 체포와 같은 형태로 온라인 활동이 통제되고 있다. 40개 이상의 다양한 규모의 민병대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라크 쿠르디스탄의 현재 상황을 좌우하는 핵심 주체는 터키이다.

이라크 내 아랍 인구 중 시아파 무슬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북부지역의 쿠르드족은 주로 수니파 무슬림이다. 이라크 무슬림의 64-69%는 시아파이고 29-34%는 수니파이다. 이라크에서 두 종파 사이의 불신과 차기 사담 후세인 자리를 위한 권력 경쟁은 종파 간의 폭력적 충돌에 기름을 부었다. 이라크 기독교인의 다수는 갈데아인 가톨릭 교도들(Chaldean Catholics)이며, 약 20% 정도가 앗시리아 동방 정교회 성도들이다. 이라크-쿠르드 지역에는 약 2,000명의 복음주의 교회 성도들이 등록되어 있다. 2018년 12월에 시도된 크리스마스를 국가공휴일로 도입하는 것과 같은 상징성 있는 정치적 진보는 바그다드의 그랜드 무프티(Grand Mufuti)를 포함한 이슬람 당국에 의해 반대되었다. 무프티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 크리스마스나 같은 기독교 공휴일을 무슬림들이 기념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다양한 박해 상황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라크 북부지역의 쿠르디스탄에 거주한다. 바그다드와 바스라에 남은 기독교인은 거의 없다. 특히 이라크 남부와 중부 지역의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무슬림 배경을 가진 소수의 개종자 그룹을 제외하고 기

독교인들은 대부분의 지역을 떠나갔다. 이슬람과 부족의 억압 형태로 나타나는 개종자들에 대한 박해는 쿠르드 지역보다 아랍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박해를 받는 기독교 공동체들

역사적 전통이 있는 교회 공동체 (Historical Christian communities)

아시리아 정교회, 갈데아 또는 시리아 가톨릭 교회와 아르메니아 공동체와 같은 교회들 모두 급진주의 이슬람 운동과 비-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의 폭력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또한 정부 당국으로부터 차별을 받는다. 이라크 중부와 남부 지역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와 같은 기독교 상징물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다. 검문소, 대학, 직장이나 정부 기관 건물 내에서 기독교 상징물을 소지하거나 착용하면 폭력적 학대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이라크-쿠르드 지역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기독교 상징물을 착용하고 노출한다.

기독교 개종자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이 범주의 교회 공동체는 이슬람에서 회심한 기독교인들과 역사적 전통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비-전통적 교회 공동체로 교단을 이동한 기독교인들로 구성된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가족(확대가족)으로부터 가장 큰 압박을 경험하며 가족과 부족 지도자 및 지역사회로부터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기독교 신앙을 비밀리에 유지한다. 또한 교단을 옮기는 것(예를 들면, 정교회에서 복음주의교회로 옮기는 것)은 종종 실직이나 권리를 박탈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들

(Non-traditional Christian communities)

바그다드와 바스라에 있는 복음주의, 침례교, 오순절 교회들은 정부당국의 차별을 비롯하여 급진주의 이슬람운동과 비-기독교 지도자들의 폭력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이라크 중부와 남부지역에서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공격 대상이 된다.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 사이에서 길거리전도를 한다고 의심받게 되면 신성모독법이 적용될 수 있다.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경학교를 설립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 외부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단체를 등록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절차는 없다.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이슬람의 압박: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인종(쿠르드인, 이란인, 아랍인)에 관계없이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들로부터 박해를 경험한다. 이

슬람 무장세력의 영향으로 북부의 이라크-쿠르드 지역(IKR)을 포함하여 이슬람적 의식이 국가의 새로운 요소가 되었다. 이라크와 쿠르드 지방 정부들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슬람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다. 몇몇 시아파 분파들은 이슬람국가인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 개종자들은 특히 국경 인근 지역에서 이란 비밀 요원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대체로 이란 사회는 더욱 이슬람화 되고 있다. 이슬람 교리와 수사학이 일생을 지배하고, 이슬람 지도자(시아파)들은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이라크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규범과 관행에 반영되고, 비-무슬림들을 위한 기준이 된다. 여성을 향한 사회적 통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바그다드와 바스라에 있는 기독교 여성들은 집 밖을 안전하게 다니려면 천으로 얼굴과 몸을 가리라고 강요당한다.

혈족에 의한 탄압:

이라크 사회는 매우 부족적인 사회이다. 특히 이슬람 종파간 분쟁에 의해 분열된 지역들(과거 IS가 통치하던 영토가 대부분이다)이 그렇다. 이러한 부족주의는 이슬람과 혼합되어 있고, 이는 무슬림 배경을 갖는 개종자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준다. 민족 및 부족 그룹들은 배타적 아젠다를 표방하는 정당을 구성한다. 기독교인들은 매우 쉬운 표적이다. 부족은 대개 법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부족들의 오랜 관습과 전통을 준수하는 것이 종종 정부 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독재정권:

역대 이라크 중앙 정부들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이는 소수 종교인들이 환영받을 수 있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라크-쿠르드 지역(IKR)의 기독교인들은 201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쿠르드 정당과 시아파 정당이 기

독교인에 할당된 국회 의석 5석을 가져가고 기독교 정당들이 선택하지 않은 후보자를 내세운 선거법 악용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모든 직급의 정부 관료들이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이민을 장려'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조직적 범죄와 부패:

이라크 전역에 부패가 만연하고 기독교인들은 부패를 통해 착취당한다. 많은 이슬람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소유 부동산 가치의 60% 가격으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특히 바그다드에서는 기독교인 소유의 토지가 범죄조직들에게 몰수되었고, 국외로 도피하면서 남겨진 기독교인들의 토지와 주택의 70%가 불법적으로 탈취되었다. 코로나19 위기는 이러한 혼돈과 부패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기독교 교단 보호주의:

새로운 교단이 허가를 신청할 경우, 공식 허가된 교회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종, 역사적 전통이 있는 교회들은 비-전통적 개신교 교회들의 등록 승인을 격렬히 반대하고 성도들이 새로운 교회에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다. 일부 전통 가톨릭 교회들은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가톨릭 교회 공동묘지에 매장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한다.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묘지가 현재 없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역사적 전통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주교는 복음주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성도들의 결혼식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남부와 중부 지역에서는, 역사적 전통이 있는 교회를 떠나 비-전통적 교회로 옮긴 기독교인들의 경우 결혼이나 상속, 고용의 기회를 잃는 등의 위협과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IS가 이라크에 주둔할 당시, 역사적 전통이 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은 IS에 더욱 협조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승인한 14개의 교단 사이에는 더 많은 분열이 있다.



남성과 여성 박해의 차이

여성

기독교 여성들은 이라크 사회 내에서 불평등한 대우로 끊임 없이 고통 받는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돌을 맞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기독교 여성들이 안전을 위해 히잡을 착용하기도 한다. 납치, 성폭행, 성적 학대 등 기독교인에 대한 범죄는 대체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가택연금, 구타, 성희롱 및 '명예살인' 등의 범죄에 취약하다. 독신인 개종자들은 무슬림에게 강제로 결혼을 당할 수도 있다. 혼인하지 않은 기독교 여성/소녀들은 무슬림 남성들의 성적 유혹의 대상이 되고 개종과 강제 결혼을 강요받는다고 알려졌다.

- 자녀양육권 박탈
- 기독교 배우자와 결혼할 권리 박탈
- 교육을 통한 차별과 학대/괴롭힘
- 직장/구직/사업 영역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종교적 복장 규정 강요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연금
- 성적 유혹

- 살인에 이르는 폭력
- 신체적 폭력
- 성폭력

남성

기독교인들은 종종 취직에 어려움을 겪으며 직장에서도 착취에 취약하다고 느낀다.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직은 기독교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슬림 배경에서 회심한 개종자 남성들은 폭력에 특히 취약하다.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쫓겨나고 위협을 받거나 살해될 위험을 감수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이민에 대한 강한 동기가 된다. 목회자들이 무장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발언을 할 경우, 그들의 표적이 되거나 지하디스트들에게 납치되며, 나아가 교회의 약화로 이어진다.

- 직장/구직/사업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강제 퇴거/추방
- 마을/국가 탈출 강요
- 정부에 의한 투옥
- 살인에 이르는 폭력
- 육체적 폭력
- 언어폭력

최근 5년간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및 박해지수 동향

년도	월드와치리스트 박해순위	박해지수
2022	14	78.11
2021	11	82.48
2020	15	76.12
2019	13	78.77
2018	8	85.59

이라크의 박해지수가 WWL2021보다 WWL2022에서 4포인트 하락한 주된 원인은 보고된 폭력사건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 사망, 교회 폐쇄/공격, 기독교인 체포와 같은 높은 수치를 차지하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적었기 때문에 박해지수에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기독교인 납치, 강제 결혼, 기독교인 상점이나 사업장(농지포함)에 대한 습격/몰수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한 보고는 작년보다 훨씬 증가했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의 사례들

-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니스웨(Ninewah) 지역 바르텔라(Bartella)마을에서 약 30명의 기독교인들을 납치했다. 납치된 사람 일부는 폭행을 당했다.

- 2021년 5월, 터키의 폭격작전으로 미스카(Miska), 잘락(Jalak), 찰키(Chalki) 지역의 기독교 마을의 가옥들과 기타 건물들이 파괴되었고, 2021년 7월, 많은 면적의 땅이 불에 탔다. 이라크 북부지역에서는 터키군의 공격으로 기독교 건물 2채가 파손되었고, 납치사건이 있었던 니네바 바르텔라 마을에서도 기독교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다.

- 2020년 말, 바그다드 전역에서 최소 11개의 기독교인 소유 상점이 폭격 당했다. 생계수단인 농지를 비롯한 부동산 자산이 몰수되었다. 아인카와(Ainkawa)지역의 기독교인들은 750,000m2의 땅을 빼앗겼다. 또한 2021년 4월 말, 쿠르디스탄 지방 정부(KRG)는 지역 농민 소유의 농경지 약 2,500,000m2를 압수하였다. 재산 압류를 등록하는 위원회의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인 재산 압류 케이스가 도후크(Dohuk) 지역에서만 55건에 달했다. 끝으로 2020년 11월, ISF(Iraqi Security Force)는 니스웨 지역 탈라이프(Talayf)구역의 많은 기독교인 가옥을 압수하여 아무런 보상없이 군부대 막사로 용도를 변경했다.

WWL 년도	사망한 기독교인 수	공격받거나 폐쇄된 교회나 기독교건물 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당한 기독교인 수	국내 이재민이 된 기독교인 수
2022	31	29	100	100
2021	4	10	100	2

위 표는 월드와치리스트(WWL) 조사기간 동안 보고된, 신앙을 이유로 발생한 폭력에 대한 일부 범주만 포함한다. 보고되지 않는 사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위 숫자들은 최소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사건의 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징적 숫자인 10, 100, 1000과 같이 표기하며, 실제로 발생한 사건 혹은 피해를 당한 기독교인의 수는 훨씬 더 많다. (년도 별 조사 기간은 2022년도 자료 기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다.)

개인 영역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거나 다른 기독교인을 만나면 위협에 처한다. 반역죄나 배교죄로 기소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기독교인과 대화하는 기독교인은 개종행위를 했다는 근거 없는 혐의를 받게 되며 괴롭힘과 폭력의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토착민족 기독교인들은 매우 보수적인 이슬람 공동체 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독교 상징이 들어간 악세사리를 착용하거나 드러내기도 한다.

가정 영역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은 기독교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슬림이 아닌 남성과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무슬림으로 간주되는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IS무장단체에 의해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위협을 받고 있는 개종자들 사이에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법정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음을 선언해야만 모든 법적 사회적 기록들을 수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2015년 제정된 주민등록카드법 26조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무슬림일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무슬림 남성의 성폭행 범죄

에 의해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무슬림으로 등록된다. 이혼 소송의 경우, 자녀 양육권은 무슬림 부모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 무슬림으로 간주되는 어린이는 무슬림 종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이라크 헌법은 기독교 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에서 평가시험을 포함한 이슬람 수업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상급과정으로 진학할 수 없다.

공동체 영역

바그다드(Baghdad)와 바스라(Basra)지역은 물론, 북부지역에서도 기독교 여성들은 머리를 가릴 것을 강요받는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두건으로 머리를 가리지 않은 여성을 '아픈 여성'으로 설명하며, 이는 사회 내 증오와 분열을 조장한다. 기독교 학생들은 일부 무슬림 대학 교수들이 의도적으로 기독교 절기 기간 동안 시험 일정을 배정한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아시리아 정교회 기독교 학교들은 자신들이 차별을 당했고 배정받은 지원금을 100% 받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해왔다. 교육제도는 이슬람 중심적이며, 이라크 역사에 기여한 이슬람 이외의 공동체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무슬림을 향한 종속적 사고방식을 낳는다. 공립학교들과 대

학들의 공식 강의 계획서 중 일부는 기독교인들을 이교도인 이자 적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지하드 전쟁을 선동한다. 주민등록카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자 개인의 종교 정보를 요구하고 카드의 데이터 칩에는 종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구직활동시 기독교인에 대한 고용 차별로 이어진다. 기독교인들은 국회와 정부 내에서 일부 고위직을 맡기도 하지만, 대체로 정부와 국회 모두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 개종자들은 신앙이 드러나는 즉시 직업을 잃기 쉽다.

국가 영역

이라크 헌법은 이라크는 이슬람 국가이고, 이슬람에 반하는 어떤 법률도 인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이슬람으로 개종은 허용하지만 이슬람을 떠나 다른 종교나 신념으로 개종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허용되지도 않는다. 개인 신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의 이혼의 권리, 자녀 양육권과 재산 상속의 권리 등 모든 권리는 대개 무슬림 배우자에게 돌아간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군대와 같은 특정 기관에서 상위 직책에 오를 수 없다. 그래서 종종 승진을 위해 무슬림으로 개종하라는 유혹을 받는다. 기독교인들은 급진주의 이슬람 단체들이 국영 TV 방송을 통해 진행하는 비방 캠페인과 증오 연설의 대상이 된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해자 대부분은 체포되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민병대를 통제할 수 없으며, 특히 니스웨 평원의 민병대는 더욱 통제가 어렵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재산이 몰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라크를 떠난 기독교인들의 부동산 자산의 약 78%가 몰수된 것으로 추정), 재판에 회부된 사람의 수는 많지 않다.

교회 영역

청소년 사역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슬람 배경을 가진 기독교 개종자들은 이라크-쿠르드 지역의 일부 쿠르드 교회를 제외하고는 지역교회 내에 통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들 개종자들은 안전을 이유로, 고향을 떠나 익명성이 보장된 대도시로 이동하거나 이라크를 떠난다. 교회에 대한 감시는 대체로 새로운 교단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5년간 평균 박해지수 동향

아래 표가 보여주듯이, 지난 5년간 평균 월드와치리스트(WWL) 박해지수는 극심한 수준이었고 14포인트를 상회하면서 평준화를 보이고 있다. 2017년 WWL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압력박해 지수는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이 영토 패권 장악에 실패하면서 이라크 땅에서 축출된 결과를 반영한 지수이다.

이라크 연도별 박해 지수 동향	5개 영역에 대한 평균 박해 지수 (16.7/만점)
2022	14.3
2021	14.2
2020	14.2
2019	14.1
2018	14.9

5년간 영역별 압력박해 지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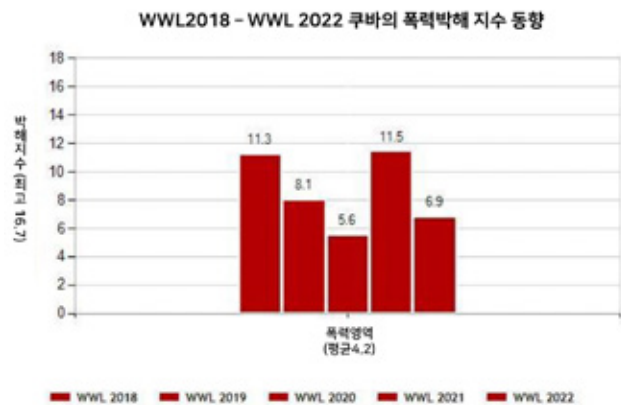


위 그래프는 2018년 WWL 이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박해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박해수준은 여전히 극심한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월드와치리스트(WWL) 대부분의 영역의 압력 박해 수준은 위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라크에서 IS가 세력을 확장하기 몇 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IS가 영토 패권 장악에 실패하고 이라크에서 축출된 결과는 특히 교회 생활에 대한 압박을 감소시킨 원인이 되었다.

5년간 폭력박해 지수 동향

2019년과 2020년 월드와치리스트(WWL)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IS의 영토 패권 장악 실패와 축출이 반영된 결과이다. 2021년 WWL에서는 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납치된 기독교인 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수의 교회가 폐쇄

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 WWL에서 폭력 박해 지수가 또 한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특히 살해된 기독교인 수와 공격받은 교회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납치사건 수, 강제 결혼 건 수를 비롯해,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상점과 사업체가 피해를 입거나 몰수된 건 수는 증가했다. 2021년과 2022년 WWL에서는 이라크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터키의 공격이 폭력박해 지수를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다른 소수 종교들의 상황

이라크 내에서 박해와 차별과 편협적 대우를 당하는 소수 종교 그룹은 예지디교도, 수니파무슬림, 카카이교도, 사바에-

만다교도, 바하이교도, 조로아스터교인과 유대인들이다. 특히 예지디교인들은 잔혹한 행위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처음에는 IS로부터 고통을 당했고 지금은 예지디 신자르(Yezidi Sinjar)지역에서 연속적인 공습 공격을 가한 터키에 의해 고통 받고 있다.

이라크의 오픈도어 선교회는...

오픈도어는 이라크 현지 교회와 현장 파트너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사역들을 통해 이라크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 예배사역
-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트라우마 케어, 성경교육, 목회자 교육,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 교육
- 성경 및 기독교 서적 배포와 쿠르드어 성경 번역
- 사회 경제 개발 프로젝트: 국내 실향민(IDP) 대상 소액대출 프로그램 등
- 교회 구조적 지원: 교회건물 수리, 장비지원, 교회 활동 지원
- 긴급 구호 활동: 이라크 북부지역 주택 및 교회 건물 재건사업
- 기도 지원 사역



HOPE FOR THE MIDDLE EAST 중동에 희망을

YOUR SUPPORT, YOUR IMPACT 여러분의 도움이 희망의 변화를 만듭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중동지역에서 교회를 몰아내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지원이 중동 땅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생계회복

살라 아스키에피(Salah Askiefi, 30세)는 라타키아(Latakia) 지역에서 스낵가게를 열기 위해 작은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모든 길이 막힌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도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노인 돌봄

80세가 넘는 아미르*(Amir)는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파트 꼭대기 층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시리아를 떠났습니다. 아미르는 다리가 불편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서 집 안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지역 교회 성도들이 집으로 방문하여 아미르를 돌봐 주고 있습니다. 아미르는,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뿐입니다.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지지 활동

오픈도어 중동지역 디렉터 토마스 아담*(Thomas Adam)은, “국제기구들과 심지어 미국 정부까지 시리아와 이라크 교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중동지역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지지하고 교회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강조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후원의 결과입니다.

구호품 지원

익티말*(Iktimal)자매와 가족들은 무장군인들에 의해 자신들의 집과 농지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은 익티말 자매 가족들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라타키아(Latakia) 오픈도어 희망센터의 그리스도인들은 익티말 자매의 가족들이 거주할 임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메트리스, 침구류, 가스, 의류, 음식 등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익티말 자매는, “희망센터를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라며 기뻐했습니다.

교회: 희망의 등불

이라크 바그다드 출신의 파디*(Fadi)는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겨우 11살이었습니. 분쟁, 죽음 그리고 두려움이 그의 어린시절 기억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파디는 교회가 희망의 등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IS가 집에서 저를 쫓아내면, 저는 교회로 대피할 수 있어요. 교회 문이 개방되어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교회를 희망의 센터로 만들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독교인들

오픈도어 중동지역 디렉터 토마스*는 무슬림 배경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온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의 예배에 참석했을 때, 놀라움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그들에게 ‘희망의 센터’였습니다.”

* 보안 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HOPE REMAINS – BECAUSE OF YOU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25만명의 사람들이 살해되었고, 백만명 이상이 거주지를 떠났으며, 인도주의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IS의 손에 의해 죽어가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희망을 잃고 시리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2015년, 절망적인 상황은 전세계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오픈도어 현지 디렉터 토마스 아담*(Thomas Adam)은, 중동 전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물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지도자들은 대답했습니다. “희망입니다. 중동 교회와 사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픈도어는 중동에 희망을 전하며 그들을 지지하고 기도하는 백만 개의 목소리를 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중동의 교회가 극심한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구호품 지원에서부터 주택 재건과 생계 회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은 시리아와 이라크 전역의 기독교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우측 참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286개의 희망센터가 문을 열었고, 이를 통해 교회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힐 수 있도록 교회의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808,0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픈도어의 ‘중동의 희망(Hope for the Middle East)’을 위한 청원에 서명하였으며, 전세계 지도자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중동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해 주었으며,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동에 희망이 살아있게 해 주셨고, 그 결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보안 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바그다드의 그리스도인 파디는 고백합니다. “교회 문이 개방되어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교회를 희망의 센터로 만들었어요.”



160

시리아에 세워진 기독교인과 무슬림 모두를 위한 희망 센터 수



2,000

이라크에 재건된 주택 수



126

전인적 지원을 공급하고 있는 이라크에 세워진 희망 센터 수



1,000,000 +

시리아에 공급된 구호식품 패키지 수



808,172

시리아와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대신하여 청원에 서명한 143개국의 서명자 수



목소리를 높이다: 노아의 이야기

노아(Noeh)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신의 고향인 이라크의 카람레스(Karamles)를 파괴했을 때, 어린 소년이었다. 노아의 가족들은 IS의 공격을 피해 고향을 떠났다. 그러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노아의 집은 바닥까지 불타버렸다.

12살이었던 노아는, 전세계 808,000명의 사람들이 서명한 오픈도어의 중동의 희망을 위한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하는 제출자로 선정되었다. 2017년 12월, 노아는 아버지 하them (Hathem)과 교회 지도자 한 명과 함께 미국으로 향했고, 뉴욕에 위치한 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서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기독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동등한 시민권과 인간다운 생활 여건을 보장받고, 사회를

화해시키고 재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촉구했다.

노아는 현재, 고향 카람레스로 돌아왔고 양을 치는 목자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삶이 쉽지 않고 일거리를 찾기가 어렵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곳이 우리 집이기 에 다시 돌아왔고 다시 집을 짓고 이 곳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이 곳으로 다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다.



변화를 만든다: 지나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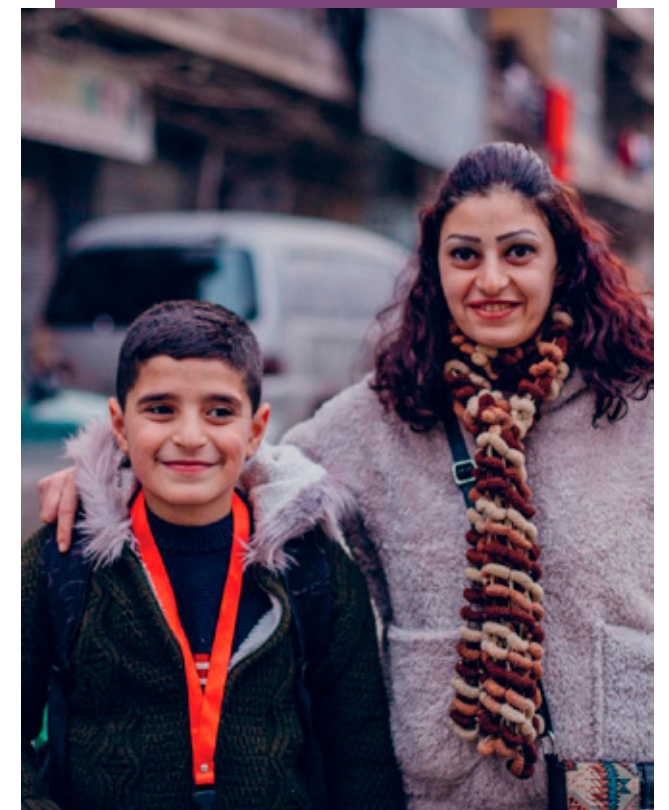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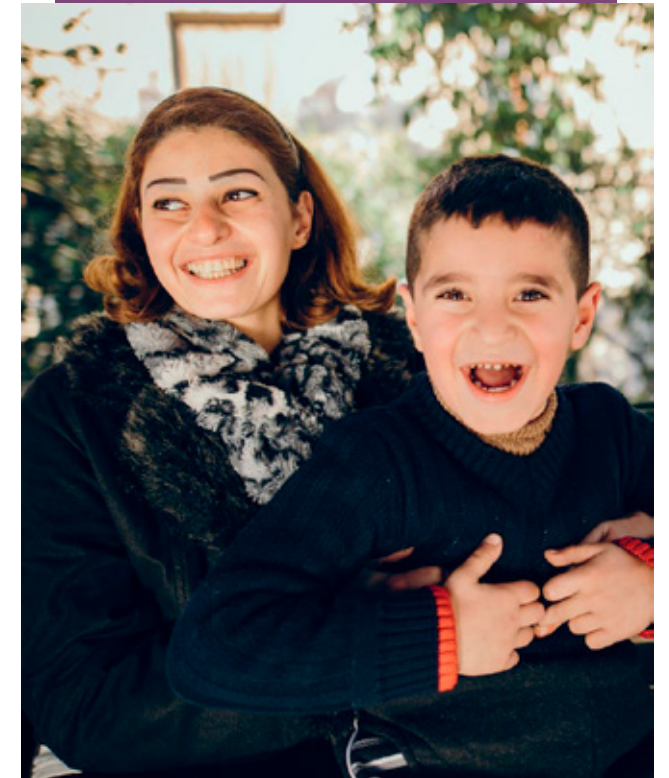
납치범들이 알레포(Aleppo)에서 시리아 카미슐리(Qamishli)로 이동하는 버스를 습격하였고, 2명의 기독교인 남성에게 내리라고 명령했다. 그 중 한 명은 나중에 몸값을 지불한 뒤 풀려났다. 다른 한 명은 지나의 남편이자 한 살배기 아이 아포(Apo)의 아버지인 로버(Rober)였다. 그 날 이후로 로버의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었다.

지나는 납치범들이 로버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하라고 반복해서 강요하는 것을 들었다. 지나는, “납치범들이 계속해서 강요했지만 로버는 ‘나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다’라고 말하며 개종 요구를 거절했어요.”라고 했다. 세월이 흘렀고 로버는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가족들은 상실감에 빠져 망연자실했다.

2022년 현재, 아포는 착하고 어머니에게 순종적인 10세 소년이 되었다. 여러분들의 지원 덕분에 지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지나는 알레포에 있는 오픈도어 희망센터에서 식료품 패키지와 난방 연료를 공급받고, 아포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한다. 지나는 현재 미용사 교육을 받고 있다. 지나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전쟁 속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미용일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시리아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전해주시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고 새로운 문들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동에 희망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ower of hope 희망의 힘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고 IS가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했을 때, 페리얼(Ferial)과 그녀의 가족들의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페리얼 가정에 희망을 전해주었고, 그 희망은 그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페리얼과 그녀의 아이들은 시리아에 있는 희망센터(Center of Hope)를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격포 발사 소리가 밤하늘을 찢고 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페리얼의 집 벽에 균열이 생겼다. 겁에 질린 그녀는 어린 두 아이를 안아 들고 욕실로 숨었다.

이것은 2011년 전쟁이 발발한 직후 시리아 알레포(Aleppo)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의도적으로 교회를 없애 버리려고 했고, 그래서 52세의 페리얼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위협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슬프지 않아요.”

페리얼은 끔찍했던 경험을 전해주었다. “한번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IS 군인들이 우리에게 총을 쏘았어요. 우리는 도망쳤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죠.”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직업도 없는 페리얼의 가족은 포위된 도시를 떠나야만 했고 라타키아(Latakia)라고 불리는 시골 지역에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페리얼은 전쟁으로 잃어버린 삶 때문에 슬픔에 빠졌다. 페리얼 가족들이 새 삶을 시작하게 된 집은 매우 좁았고 전기 사용이 제한된 곳이었다. 대규모의 다른 기독교인들은 시리아 땅을 떠나고 있었다.

그러나 페리얼은 나자렌 교회(Nazarene Church)에 있는 오픈도어 희망센터(Open Doors Centre of Hope)를 방문했고, 이것은 페리얼 가족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 주었다.

“저희 가족은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페리얼은 말한다. “그분들은 우리 가족을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섬김은 제 안에 지금까지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을 일으켜 주었어요. 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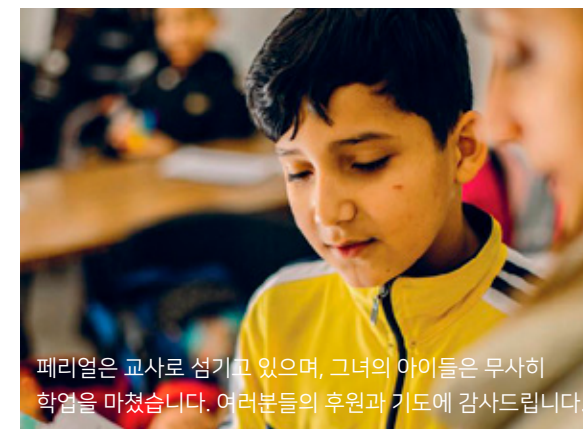
가족들은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오픈도어 후원자들의 기도와 지원 덕분에 시리아에는 현재 160개의 희망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오픈도어 희망 센터는 기도, 상담, 성경교육, 소득창출 프로젝트, 스타트업 소액대출, 의료지원과 인도주의적 도움을 포함하는 전인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페리얼과 가족들은 음식, 임대료, 어린이 교육과 여성 성경공부 모임을 통한 신앙 성장과 같은 필수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를 지원받고 있다. 그녀는, “저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예수님이 가신 길에 더 다가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러한 사실에 제 마음이 이렇게 감동받은 적은 없었어요.”라고 고백했다.

페리얼은 현재, 희망 센터의 교사로 섬기고 있으며, 그동안의 두려움은 모두 사라졌고 그녀의 아이들은 무사히 학업을 마쳤다. 극심한 가난과 고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픈도어 후원자들의 기도와 후원은 여전히 페리얼과 자녀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에 너무나 감사드려요. 예수님을 만난 뒤로 저희들은 아주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게 되었어요. 전쟁, 경제위기, 전력난과 식수난, 심리적 충격 등의 모든 위기들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 평안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슬프지 않아요. 주님께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어요.” 라고 고백했다.



페리얼은 교사로 섬기고 있으며, 그녀의 아이들은 무사히 학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PLEASE PRAY 기도해 주세요.

- 페리얼 자매와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녀의 삶에 희망의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페리얼의 자녀 안나(Anna)와 마리아(Maria)와 오하네스(Ohannes)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희망이 이들 다음 세대에 빛을 비추도록 기도해 주세요.

- 시리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시리아 교회가 희망의 등불이 되어 어둠의 땅을 밝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PLEASE GIVE 후원해 주세요.

- 5만원으로, 이번 겨울 시리아 기독교인 한 명에게 식량, 겨울 옷, 침구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7만원으로, 취약한 기독교인 2명에게 기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9만원으로, 수련회에 참석하는 기독교인 1명에게 트라우마 치료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WATCH FERIAL'S STORY 스토리 영상 시청



큐알 코드 스캔 또는 한국오픈도어 선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의 백만기도운동(One Million Prayers of Hope)에 동참해 주세요.

- 자세한 사항은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www.opendoors.or.kr]를 참고해 주세요.

- 시리아와 이라크를 위한 기도로 전세계 지도에 기도의 빛을 밝혀주세요.

사이트 방문 [www.makehopelast.org]

※ 문의사항은 선교회(02-596-3171 또는 010-7548-31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의 희망을 위한 프로젝트

ISIS에 파괴된 도시 속에 희망을 심는 소액 대출 프로젝트

2017년 이라크 모술과 가까운 도시인 바르텔라(Bartella)의 기독교인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3년 간의 불안과 끝없는 난민의 삶이 끝나자, 이들의 마을은 마침내 ISIS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마을의 건물들과 도시 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은 도시뿐만 아니라 나라를 떠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국가 경제는 파탄났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 곳에서 자녀들을 위한 미래를 다시 세울 수 있었을까요?



2017년, ISIS로부터 독립한 직후의 바르텔라(Bartella) 시의 모습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딜레마에 빠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사랑했고 떠나기를 원치 않았지만, 이라크 땅에서 삶을 다시 일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현지 파트너들은 가정집 재건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소액대출 지원을 통해 그들이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소액대출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은 세 명의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소액대출 프로젝트가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나누어 주었다.

타머(33세)와 실바나(24세) 가정:가정용품 상점

타머와 그의 아내 실바나는 가정용품 상점을 운영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손님들이 가게를 방문해 물건들을 돌려

보고 계산대로 와 물건값을 지불하면 타머는 거스름돈 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미소도 함께 손님들에게 전한다.

2017년 이라크가 독립한 후, 타머는 자신의 핸드폰 가게가 완전히 초토화된 것을 보았다.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고, 어떤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했습니다.”라고 당시의 어려웠던 상황을 전했다.

그는 가정용품을 파는 새로운 상점을 오픈하기로 마음먹었다. 집 안팎의 많은 부분들을 수리해야 하는 마을의 상황상 너무나 필요한 상점이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상점을 더 확장할 수 있었고, 지금 현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심과 도움을 통해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라며 오픈도어 후원자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타머와 실바나의 상점 덕분에, 바르텔라 시민들은 필요한 물품을 부족함없이 공급받고 있다.

소액 대출 프로젝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소액대출 프로젝트는 가게 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소상공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에게 오픈도어가 소액의 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젝트이다. 심사는 지역 교회가 설립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소액대출은 약 65만원에서 약 650만원까지 가능하며, 원금은 일정 기간 후 상환하면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276가정이 소액대출의 도움을 받고 있다. 지원하는 사업은 상점, 택시, 회사, 농장, 공장 등 매우 다양하다.

소액대출 프로젝트에 이어, 지역 교회들 또한 성도들을 위한 소득창출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지원받는다.

칼리스(Khalis): 금속공장

시끄러운 소리가 바르텔라의 조용한 거리에 울려 퍼진다. 창틀과 부엌 캐비닛들을 생산하는 칼리스의 금속 공장에서 나는 소리이다.

소액대출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칼리스의 공장은 수익을 내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했다. 칼리스는 “이 장비들은 생산 시간을 많이 절약해줍니다. 장비들을 구입하기 전에는 강철판을 구부리기 위해 모술까지 가야했습니다. 또한 손으로 밴딩 작업을 하면서 많은 부품들을 분실했습니다.”라고 전하며 소액대출프로젝트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전했다.

난민 생활 뒤 고향 바르텔라로 돌아오는 것은 칼리스에게 꿈만 같았지만, ISIS의 통치 이후 삶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칼리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칼리스는 포기하지 않고 삶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 칼리스는 “이 곳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제가 하고 있는 금속공장 일을 이어받게 할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을 통해 저희 가족들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칼리스의 금속 공장은 창틀과 부엌 캐비닛들을 생산한다.

나와르(27세): 인터넷서비스업

최근 대학을 졸업한 나와르는 바르텔라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었다. 그는 마을에 안테나를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ISIS가 바르텔라에 침공했을 때, 나와르는 모술 대학에서 전자 통신 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2학년 학생이었다. 수천 명의 기독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나와르는 대학을 떠나야만 했으며, 다른 곳으로 옮겨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게도, 다른 대학으로 옮겨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라고 나와르는 말한다.

나와르가 부모님과 함께 고향 바르텔라로 돌아왔을 때, 취업 기회가 거의 전무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심각했다. “소액대출 프로젝트와 대학에서 익힌 전문 기술 덕분에 집에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사하게도 사업이 성공적이었고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소액대출 프로젝트를 통해 도움을 주신 오픈도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기쁨을 나누어 주었다.



바르텔라 도시에 인터넷이 잘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나와르의 모습

이라크가 ISIS로부터 독립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바르텔라 도시는 아직 완전히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도어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오픈도어의 소액대출 프로젝트의 수혜를 입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대표하여 칼리스 형제가 오픈도어 후원자 모두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곳 바르텔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를 비롯한 이 곳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전화번호	
출금계좌번호	은행		주소		
출금액	10,000원	출금일선택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 (한국오픈도어선교회)